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라

- 복음으로 여는 골로새서 -

이사야9:6, 골로새서2:3

정윤돈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인간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오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이 땅에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주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메시지가 내 삶의 기준, 수준, 표준이 되게 하옵시며, 응답과 치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 중의 한 사람이거나,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주만물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순한 시작과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경제, 공부, 일 모두 해결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되어지는 응답 또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방법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영적인 시스템이 삶 속에 녹아들어가시기 바란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해야 할 전도자의 삶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첫 번째로, 골로새서의 개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가 아니다. 골로새교회는 에베소에서 전도운동을 할 때 두란노서원에서 훈련을 받은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이는 제자양육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골로새교회는 전도된 제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설립하여 지역을 복음화시킨 모델적인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골로새서도 옥중서신 중의 하나로 사도 바울이 로마감옥에서 AD. 62년 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은 두기고이다. 두기고는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의 편지를 전달하였고, 그 후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를 거쳐 골로새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이 여행은 목숨을 건 여정이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세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4장 7절이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라니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를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내용 중에 같거나 비슷한 구절이 55개의 구절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골로새서를 보낸 목적은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항상 복음, 오직복음, 완전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완전복음으로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이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골로새서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나온다. 1장 9절이다. ‘이로써 우리도 들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영적 서밋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그리고 골로새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 그것은 골로새교회에 들어온 5가지 잘못된 사상들이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1)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철학사상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하였던 것이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철학의 수준이 낮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윤리와 도덕, 감정,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겠는가. 플라톤은 모든 만물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란다. 이 실체가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초등학문이고 헛된 속임수이고 사람들의 전통에 불과하다.

(2) 영지주의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영지주의에서는 육체를 약한 것으로 보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을 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총만이 육체로 거하시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영지주의 사상을 박살내고 있다.

(3) 할례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이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할례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4) 율법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 중에는 아직도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답을 주고 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이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5) 경건주의와 천사숭배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답을 주고 있다. ‘아무도 꾸며낸 겹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세상의 경건주의는 꾸며낸 겹손이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그리스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2.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비교적 짧은 4장으로 되어있지만 어떤 성경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있게 말씀하고 있다.

(1)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조상의 죄까지 모두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3) 또한 그리스도는 우주만물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와 증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아주 중요하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는 아버지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4)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권력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한다. 이때 충분한 모든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5)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만물이 유지되도록 잡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17절 후반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다.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all things hold together'이다.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 우주만물의 별들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이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해체된다. 이것을 썩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그 모양과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 우주와 동식물도 같은 원리이다.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체의 시스템이 유지된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다.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다. 그것은 부부, 가정, 나라,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나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들은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들이 모두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미가 그렇고 아프리카, 공산주의국가도 그렇다. 우리는 이 비밀을 237 나라에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해체된 모든 가정들에게 전해야 한다.

(6)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 가정, 개인도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당, RUTC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7) 1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 안에도 비밀이 담겨져 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첫 시작이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 때에 홀연히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다는 첫 열매요, 증거인 것이다. 그 때는 우리들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첫 시작을 보여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 시작과 끝이시다.

(8)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 영적 사실을 믿고 체합하기를 축원드린다.

(9)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1장 21절에서 22절에는 그 화평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고 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복음의 사람으로 거둔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10)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생명이다.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야 한다. 그 때 예수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3. 세 번째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알아보겠다. 특히 3장에서는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3장 1절, 2절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한다. 3장 5절, 8절에서 10절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을 뛰어넘는 참된 지식을 새롭게 갖기를 바란다. 3장 12절에서 15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3장 18절에서 31절에서는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미땅하니라.',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곱하게 하지 말라.', 20절에서 21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3장 22절에서 23절과 4장 1절은 현대사회에서의 직장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보면 되겠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시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지교회포럼) 권면하고(복음교육)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다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피차 가르치며 포럼하는 것이다. 복음은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방법이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다.

결론이다. 우리들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붙잡을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골로새서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수록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237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24시간 집중해야 할 3가지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공부, 일이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집중해서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겠다.
5. Practice, 실천이다. 모든 성도들의 실천 목표는 300 지교회, 30 다락방, 3 지교회이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고, 발견한 깨달음을 한 가지라도 포럼해보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응답과 축복과 깨달음을 얻어서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세상을 리드해가는 모든 후대와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